# 종회 앞서 멸빈자 사면 구상 '본격화'

## 조계종, 종헌 개정 이후 계획 발표… 종정 교시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이 멸빈징계자 사면관련 종헌 개정안을 다룰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대화합을 위한 멸빈자 특별사면 세부 과정을 발표했다.

조계종 기획실(실장 금산)은 3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대화합을 위해 1962년 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기획실에 따르면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징계자는 총 230명이다. 징계사유별로 구분하면 △해종행위자 37명 △직무비위자 16명 △재산비위자 22명 △승풍실추자 91명 △성보도난 및 훼손자 8명 △폭력행위자 8명 △승적 허위 취적 2명 △징계사유 미확인자 11명이다.

### 멸빈자 사면, 중앙종회에 달려

이들 멸빈자에 대한 사면은 2003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새 집행부가 출범할 때마다 멸빈자 사면 추진은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종정 스님의 사면 관련 교시만 3번 내려졌지만 성과가 나오지는 못했다.

현 집행부가 추진하는 멸빈자 특별사면 방안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

**1962년 이후 멸빈자 230명 대상**
**사면특위 구성해 원칙 · 절차 확정**
**사면 後 일정 권리제한 있을 듯**
**종헌 개정안 종회 통과가 '관건'**

앙종회에 계류 중인 종헌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조계종 종헌 제128조에는 멸빈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집행부 당시 부칙 삽입을 통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 · 경감할 수 있다'는 골자의 종헌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상정해 계류 중이며, 3월 20일 열리는 중앙종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차주상보〉 사실상 중앙종회가 멸빈자 사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 종헌 개정 이후 사면계획들

종헌 개정이 이뤄진 후 구체적인 사면 추진 계획들은 마련된 상황이다. 조계종 기획실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종단 대화합을 위한 멸빈징계자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칭)'을 구성하며, 이를 통해 사면 기준과 원칙, 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면에는 재산 비위와 바라이죄, 환속자, 탈종자, 개종자들은 제외된다. 또한 사면 이후에도 일정한 권리제한을 진행하는 방안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면위원회에서 사면안이 마련된 후에는 중앙종회의 사면 동의, 종정 스님 재가를 거쳐 사면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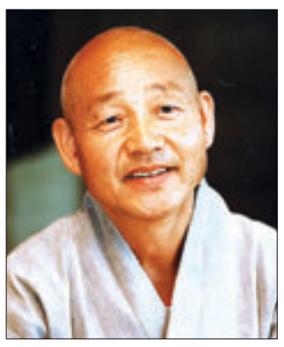
이에 대해 금산 스님은 "종헌 개정안이 통과하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원칙을 마련해 소홀함 없이 사면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면이 이뤄지면 새로운 변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승가화합을 위한 진정한 대작불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기획실은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이 내린 특별사면 관련 교시도 공개했다. 진제 스님은 3월 12일 내린 교시에서 "승가의 운영원리는 오직 화합만이 있을 뿐이다. 과거 우리 종단에는 구성원 중 일부가 과오로 이탈했으나 참회하고 자중하며 다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대중 앞에서 진심을 다해 자자하여 종단의 일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또 "화합 조치를 통해 종문을 더욱 높고 빛나게 하고 교단의 존재 이유인 지계청정, 정진화합, 광도중생의 길에 모든 종도가 일치 단결해달라"면서 "나아가 수행공동체의 신심과 원력으로 남과 북의 모든 민초들이 함께 번영해나갈 활로를 여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도사 방장후보에 성파 스님 추대

## 방장선출 산중총회 1년 만에 성원… 단독후보로 추천돼



약 1년간 방장을 선출하지 못해 혼란을 겪은 영축총림 통도사가 방장후보에 현 방장대행 성파 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3월 9일 방장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비공개로 열고, 단독 후보로 추천된 성파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구성원 473명 중 310명이 참석해 성원된 산중총회서는 前방장 원명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월파 스님, 前주지 원산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 등이 성파 스님을 후보로 추천했다. 특히 산중총회가 별도의 이견 없이 개회 30분만에 끝나 각 문도회가 사전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 문중 간 화합이 어려웠던 통도사의 정상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방장후보로 추대된 성파 스님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산중에서 대중을 위해 노력하며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지 영배 스님은 "많은 분들이 산중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불지종가로 위상을 세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후보자 스님을 잘 모시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산중총회 후 통도사 총무국장 혜철 스님에 따르면 통도사는 사전에 각 문중이 만나 의견을 나눴다. 또한 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주지 영배 스님의 결단도 만장일치 추대에 힘을 실었다.

방장후보로 추대된 성파 스님은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과 197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1971년 통도사승가대학을 졸업한 이후 총무원 사회부장과 교무부장,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맡았으며, 제5 · 8 · 9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 선학원 원로들마저 이사회 비판

## 원로 39인 시국성명 발표… 법진 스님 사퇴 촉구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사회마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해 선학원 원로스님들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선학원 원로 39인은 3월 13일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이사장과 이사회의 석고대죄 △법진 스님은 피해여직원에게 용서를 구할 것 △법진 스님의 공직 사퇴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및 선학원 혁신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원로스님들은 "선학원은 일제강점기 청정승풍의 한국불교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불교재단이다. 해방 후 정화불교의 산실로서 오늘날 조계종이 정립할 수 있는 모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학원"이라며 "오늘날 선학원은 안으로는 법진 이사장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버젓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밖으로는 법인법으로 종단과 대립각을 세우고 파행운영 해온 지 어언 6년이 됐다"고 지적했다.

스님들은 이어 "선학원 대중은 행정부실과 종단과의 갈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이사회가 현명하게 사태를 수습해주길 기다렸지만 오히려 이사장을 공식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로스님들은 또 "일생을 선학원에 몸담아온 원로로서 지금의 위기상황을 수수방관 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에 칠십 넘은 빈승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분원 대중스님들께 청한다"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선학원 창립정신을 구현할 때 한국불교 미래가 열린다. 원로들도 미력하나마 이 생의 마지막 힘을 보태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시국성명에는 강남포교원과 서봉사 등 28개 분원 39명의 원로 스님들이 자필서명과 직인을 담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 보시 ㊦

## 깨달음에 이르는 첫걸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잔뜩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인색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자기는 주지 않으면서 많이 받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삶은 분노와 원망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주기보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탐심입니다.

탐해서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재앙은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재앙과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보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보시 수행은 봉사하는 삶이며 복전 가꾸기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제목 · 빈자일등 그림 · 조향숙

**나누는 기쁨이 '보시 공덕'**
**주고 받는 사람 함께 행복**
**"재물 없어도 나눌 수 있다"**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색과 탐욕은 불행이고 보시는 행복입니다.

콩 한쪽도 나눠먹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무엇이든지 나누는 연습을 합시다. '선행통장'을 만들어 공덕을 저축해보세요. 나눔이 습관화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망설임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주고 또 주십시오. 주는 일은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탐욕과 집착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보시에는 재보시(財布施), 무외보시(無畏布施), 법보시(法布施)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법보시는 보시중에서 가장 수승한 보시입니다. 불법(佛法)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일러주는 '진리'이므로 법보시는 '진리 나눔'이며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나만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경전을 법공양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따르는 불자의 사명이며 도리입니다.

무외보시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 지도록 도와주는 마음보시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재보시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재물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일곱가지 방법 무재칠시(無財七施)를 일러주셨습니다.

온화한 얼굴로 남을 대하는 화안시(和顔施), 칭찬과 배려와 같은 부드러운 말 언시(言施), 자비심으로 이웃이 잘 되기를 축원하는 심시(心施),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안시(眼施), 몸으로 남을 돕는 신시(身施),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床座施),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서 돕는 찰시(察施). 〈잡보장경〉에 있는 무재칠시입니다.

무재시는 재물 없이도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나눔입니다.

보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시는 지혜에 이르는 첫 걸음입니다.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면 주는 사람도 함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기쁨이 나눔의 보상이고 보시의 공덕입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이고 '착한 관계'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따뜻한 자비행이고 무주상보시일 때 보시바라밀은 완성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